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8호 현대불교
2007년 3월 7일(음력 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어제도 내일도 없이 그냥 하루살이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어서는 애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애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믿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지요.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에 못 다녔는데 나중에는 자기까지 달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것을 때 차츰차츰 뛰어넘어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어넘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민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

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보가면서 딱딱 밀고 나가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딱딱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왔던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음이 와서 느꼈던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어보셨지요. 우리가 살면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습!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즉 교법입니다. 그건 유의 법이죠. 그리고 말없이 걸레를 빨아서 탁 닦는 것도, 말없이 걸어가는 것도, 말없이 행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둘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잘 생각해보시라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주 변해서 돌아가면서 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일부러 지어서보다도 생활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한번 해보는 거,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애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과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질과학으로서 우리의 다섯 가지 능력만 해도 이 도리를 체험해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에 급작히 미사일이 건너와서 폭파될 처지가 하더라도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고 못박으면 못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주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게 되고 안으로 굴러게 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안으로 굴러게 되고 자주 돌아가다보면 느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걸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을 때에는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면 미사일이러도 그런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해 놓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돼! 5년 있다가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5년 있다가 그 말이 한테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자신이 자신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걸 지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살이로 사느니라.' 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내가 콩씨 얘기도 많이 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흘러나가고, 흘러나가서 다시 돌아서 또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데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으로써 전달되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행해나갈 때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그게 마음대로 못하죠. 잘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전도 그렇습니다. 우주간 법계에 그 무전줄이 있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차단을 시켜놓으면 그런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러는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자기도

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럴 진짜 사람이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고 선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나 거정에 대해서나 타인으로 인해 서나 또는 내가 봐서나 들어서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의심이 나는 게 있다면 물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시대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 조그만 조망망이만한 나라에 또 세계적인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 안에 말입니다. 손님네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참, 이것도 한 가정 일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

자기를 자기가 진정으로 믿게끔 만드세요

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백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애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런 거짓이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욕제나 내 욕제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 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깬다. 아!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어서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現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집승들이 사람을 거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부처는 말이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또 설법을 하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는 애깁니다. 그 거 생각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이,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 번씩들 해보시면서 공부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앓은 자리가 피난처지. 욕심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서 체험을 해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도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 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큰 바

다가 또 사람이만큼 남이 잘된다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한 나라에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를 내세우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해서도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나가면 한다면 그것은 목적인 겁니다. 목적인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다녀야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보를 끼고선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해보아야요.

또 회사에 나가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 뭐

22면으로 계속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함장

- 대추, 초·재혼 신원
확인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제12차 정기총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시는 원로 대덕 큰스님 이하 중진스님 및 회원스님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본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2007년의 사업을 결의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회원 스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총회안내

- 불기 2550년 사업보고 및 2551년 사업 계획(안) 승인
- 불기 2550년 결산보고 및 2551년 예산(안) 승인
- 정관개정

일시 : 불기 2551(2007)년

3월 8일 (목) 오후 2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총상남 봉국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제12차 정기총회준비위원회
전화 : 02)725-4277 팩스 : 725-4287

2007년도 영남범음범패및 작법무 제4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7년 3월 24일

무형문화재 제9호 해룡 큰스님의 수제자이자 통도소리 어정을 맡고있는 청봉스님은 4세대 통도사 통도소리 어정인 신 일호스님의 문하에 입문. 1999~2001년 대한불교 조계종 앙상 통도사 상노전 직무를 역임하였고 통도사소리 부유자로서 부산불교교육대학에도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9호인 해룡 큰스님께 특별전수를 받아 수제자가 되어서 통도사 소리 맥으로 작법무와 징,강쇠,북,호적까지 모두 지도하고 있다.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 ▶매주:토요일 오후 4시 회비 월10만원 (능곡,필기구 준비)
-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 1개월 (오령,목탁치는법,도량성,새벽중성,조석예불,각단불공)
-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 5개월 (상응영반,중시영반,관음시식,화엄시식,구법시식,다비문(초상집영불))
- ▶전문반 비갈채비 ~ 불공,천도재 = 1년 (법패,징,강쇠,북,호적(대평소))
- ▶연구반 비갈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 3년 (점안식,예수재,수륙재,영산재등 모든 과정)
-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바라춤 = 1년 (매주 수요일 오후2시) 회비 월10만원
- ▶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수 있으며 인연이 있는 스님(약간영)은 본사에 속속 하면서 배울수도 있습니다.

영남에 있는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는 사실의 규모가 가장 크며 전통 그대로 가르치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범음범패를 공부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구영남의 대중들이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赴焚修히도 須早暮勤行히야 自責懈怠히며 知衆行次히야 不得雜亂히며 讚頌祝願히도 須請文觀義언정 不得但隨音聲하고 不得韻曲不調히며 瞻敬尊顏히도 不得攀緣異境히어다

- ◆요령 목록은 모든 의식의 근본이 되는 법구입니다. 더불어 광서 태경 북, 등을 법패와 작법에 맞게 다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 ◆예불과 불공, 연주(특별)행사의 법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기재 전도제 예수재 수록제 사다림법(임종염불) 등에 임하여 부족하거나 황당하셨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 ◆불상과 법회를 모시는 점안법회는 정말 거룩한 의식이시지요?
- ◆주요 경전과 의식의 우리말 독송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삼삼구위 임박사위의 신중작법은 어떻게 행하시니까?
- ◆마리무 작법무 범고무를 배워보시는 어떠하십니까?

*이것뿐이었습니까? 후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는 마십시오, 발심만 하십시오! 길을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고, 의심스러우시겠습니까? 외부시범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 가십시오.
*불교의 의식에 바르게 임하는 것이야말로 선(禪)이며, 교(敎)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가야 하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현상에 부끄럽지 않고, 시주에 수지스런 지성을 추구하려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교계의 대덕 큰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가까운 도반과 함께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得辨祝願히도 不解其意히면 亦不壇越히도 應羞恥乎며 得食唱頌히도 不達其趣히면 亦不賢聖에 應慙愧乎어 人惡尾蟲이 不辨淨穢인달히야 聖僧沙門이 不變淨穢니라

나무원세음보살

※제1기 회원모집 (삭발염의 출가승려에 한함)
※접수마감 및 교육원 개강 : 2007. 3. 9(금) 오후 2시 (회원교육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제가불자의 회원모집은 추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 육 원 : 경부선 영천IC에서 10분 거리 (慈光園)
※문의전화 : 054)336-4475 ~ 6 / 010)4579-0408
송청산 용화사 주지 교육원장 혜영 지음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 정회원 일동 합장